

환경연구부

환경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물, 흙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고있는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환경이 인간의 지나친 활동과 간섭에 의해 균형있게 살아가는 생태계에 질서변화를 가져와 결국 다양한 동·식물의 생존·생육·번식·활동에 장애를 주는 현상을 환경오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환경오염은 자원 집약적인 산업구조에 기반을 둔 고도성장방식으로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으며,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개발수요의 확대 등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동안 난개발로 훼손된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지역 환경관리의 전제조건으로써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강하게 제기되는 지속불가능한 지역사회의 생활여건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여건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직면한 중요한 도전의 하나는 사회 각계각층이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세대간 환경의식 차이로 실천하기까지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 계획은 지역별, 부문별, 세대별 참여를 포괄해야 하고, 특히 지역사회 수준에서 특성이 감안되고, 지역적 조건을 고려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며, 잘 보전된 토양, 물, 공기 등은 우리 생활체계의 기본이며 후손인 미래세대에게도 더 많은 활동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래를 고려한 환경관리 방향은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예방으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하며, 현세대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도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삶의 터전을 위한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균형 있는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 수립의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일상 및 산업·경제 활동에 제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주민 모두는 자연의 환경용량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환경연구부는 새 천년에 걸맞는 선진 환경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과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생명력이 왕성하고 생물 다양성이 상시 유지되어 생태계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며, 미래 환경을 포함한 가치있는 충청남도의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부에서 진행한 주요 연구로는, 논산시·보령시·예산군의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양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비위생매립지 정비방안, 유기성폐기물 효율적 관리방안, 악취저감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 각 시·군에서 의뢰하는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연구부는 충청남도의 환경변화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기, 수환경, 폐기물, 토양, 소음 등 각 분야별 환경오염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장래 환경예측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 보전방법과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사회로 발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상 진 (환경연구부장)

